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오는 10월 15일은 홍남순 변호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15주기가 되는 날이다. 세월은 참으로 무상하다. 구 전남도청 영결식장에서 우리 모두가 통곡하면서 떠나보내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주기라니, 이렇게 세월이 빠르단 말인가. 며칠 뒤면 맞이할 기일이라 선지 유독 홍 변호사님이 그리워진다. 책장에 꽂혀 있는 '영원한 재야, 대인 홍남순' (2004, 나남출판사)이라는 제목의 홍남순평전을 꺼내서 읽다 보니, 홍 변호사님의 위대한 민주 투쟁에 머리를 숙이게 되면서 회고의 감정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평생 최종 집필하지 못한 대로 홍 변호사님은 '행동하는 지식인' '민주화운동의 대부' '광주의 큰 어른'이라는 결론에 동의하면서 나의 생각도 전하고 싶다.

홍 변호사님의 아호는 취영(翠英)이다. 고향은 화순군 도곡면 모산리(지금은 효산리). 그곳에서 1912년 한학자의 손자로 태어났다. 어려서는 조부로부터 한학을 수학하였고, 큰 뜻을 품고 일본에 밀항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다. 해방된 46년 34세에 광주지방법원 화순 등기소장에 취임하였고, 그 다음 다음 해인 1948년 36세에 조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1953년 41세에 그 유명한 광주시 공동15번

가신 지 15년, 홍남순 변호사님

지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해에 군법무관으로 임명하여 군복무를 마친 뒤 195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고 이어서 고등법원 판사에 올랐다. 61년 강경지원장, 62년 광주고법판사를 마지막으로 법관 생활을 마치고 63년 1월부터 변호사로서 영원한 재야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때부터 공동15번지는 광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랑방이 되었다.

홍 변호사님의 날개와 우산 밑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며 반독재운동에 참여했다. 소설가 송기숙 교수와 나는 이른바 '홍·송·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민주운동 중 한복판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홍 변호사님의 호칭에 '대로' (大老)를 추가하지는 논의로 '취영대로'라는 호칭 봉정식을 추진하게 됐다. 옛날 주(周)나라 때의 태공망·이윤·백이·숙제와 같은 '국가의 대로'라는 존칭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나는 '대로론' (大老論)이라는 글을 써, 그 무자비한 군부독재 시대에 탄압받던 민주인사들을 무료변론하느라 전국 방방곡곡의 법원을 쫓아다녔던 홍 변호사님의 노고를 위로하는 일에 앞장섰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구속된 학생이나 민주인사, 69년 삼선개헌 반대 운동으로 구속된 이들, 71년 교련 반대 데모의 구속자들, 홍 변호사님은 그들 모두가 재판을 받게 되면 무료 변론으로 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셨다. 그러면서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전남도위원회 등 온갖 민주화운동 단체의 지도자가 되어 대중운동의 선봉장으로도 활동하였다. 71년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전남대표위원이 되었고, 75년 민주회복국민회의 전남대표 상임위원에 피임되어

반유신운동에 앞장서서 투쟁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보과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구류되거나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홍 변호사님의 민주화운동의 대단원은 80년 군부독재의 5·18 양민 학살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 끝내는 '내란 중요 임무중사' 라는 죄명으로 상무대 영창에 억류된 일이다. 변호사님은 무서운 고문에도 끝내 항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사법정은 무기징역이라는 중벌을 내려 70 노인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말았다.

광주·전남의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고생할 때, 백발노인이 수갑을 차고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던 모습을 나는 언제나 잊지 못한다. 나도 함께 구속된 몸이어서 불안을 떨고 근심에 잠겨 있었지만, 비울 때마다 환한 얼굴 표정으로 근심 걱정 없이 대해 주던 홍 변호사님의 모습은 역시 대인이다. 81년 12월 성탄절 특사로 출소하였지만, 취영대로는 광주항쟁의 진상을 밝히고 군부 악당들의 죄를 묻기 위해 앞장서서 싸우는 일에 쉬는 날이 없으셨다. 구속자협의회 의 회장으로, 광주민주혁명위원회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앞장서서 싸우는 전열의 최전선에서 탁월한 투쟁을 전개해 주셨다.

인권변호사, 민주투사, 국가 대원로 즉 우리 시대의 마지막 '대로'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주신 '광주의 무등산' 이 바로 취영대로였다. 며칠 뒤면 15주기인데, 아직도 기념관이 세워지지 못한 채 공동 15번지 민주화운동의 사랑방은 잡초만 우거져 있다. 기념사업회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인데, 광주시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홍 변호사님을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고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은 위기로 내몰릴 것인지, 아니면 대전환으로 나아갈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의 정서 및 심리, 사회성 교육 결손에 대한 우려 속에 등교 수업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수업의 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중단 위기 속에서 원격 수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대다수 교사가 해외 화상회의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의 교육용 콘텐츠에 의존하여 수업을 이어가는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과 학부모도 난생 처음으로 원격 수업을 받으면서 디지털 역량을 검증받는 시험대에 올랐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학교가 문을 닫으니 학교가 보였다'는 말처럼 등교가 그리웠고 학교가 학업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원격 수업 시행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미래 교육을 위한 새 도전,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원격 수업은 교실의 환경과 흡사한 분위기를 재현한 쌍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 화상으로 얼굴을 대하면서 소통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채널도 생겼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쌓인 데이터는 향후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콘텐츠 학습에서 시작한 원격 수업은 쌍방향 화상 수업을 거쳐 향후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가상공간상의 학습으로 더욱 빠르게 진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은 기술과 결합하는 에듀테크(EdTech)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화상 수업 플랫폼과 최신 기술이 적용된 교수학습 도구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때보다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학사 일정 관리와 교육과정 운영 등 기존의 업무에다가 원격 수업 준비와 방역 관리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과부하로 인해 새로운 에듀테크를 사용해 보고 검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어렵다. 에듀테크 기업들도 교육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의 부재로 기술 검증과 유통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에듀테크 실습과 소통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경기, 광주, 대구에 각각 마련하여 9-10월 잇따라 개소한다. 지난 9월 29일 경기

교육청이 경기대학교와 손잡고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개소식을 메타버스로 진행했던 것은 향후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시사해 준다.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는 에듀테크의 교육 효과성을 검증하여, 현장 맞춤형 에듀테크를 개발·보급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는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며, 기업은 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학생·학부모는 에듀테크 경험과 역량 개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에듀테크 정보와 활용법을 터득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일상 활동의 제약을 가져왔으나,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방식의 일상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향후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에 더욱 깊이 스며들게 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며 에듀테크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미래 교육 제제로의 대전환에 필수적인 도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미래 교육에 대비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미래를 위한 애플 교실' (ACOT: Apple Class of Tomorrow)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에듀테크 소프트웨어'의 개소가 코로나19가 촉발한 교육의 위기를 넘어 미래 교육을 향한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최석호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상임대표

일제강점기 독립항쟁부터 군부독재·문민독재 시대 민주화투쟁까지 민족의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었다.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그 법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뜬 국가보안법은 지난 73년간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면서 독재자들의 통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우리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 제재와 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운동 단체인 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전대협)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 당사자 중 하나다. 80년대 전대협은 산하 기구인 정책위원회와 조국통일위원회가 이적단체로 규정

국가보안법. 이제는 사라져야 할 악법이다

되었고, 90년대 한총련은 조직 자체가 이적단체로 낙인찍혔다. 이로 인해 쫓겨온 대학 시절 무수히 많은 정춘들이 수배와 구속을 거쳐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양산됐다. 분단 체제 모순과 이로 인한 이념 대립과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청년들의 총정 여러 통일운동에 대한 대가는 실로 가혹했다.

대표적인 예로 1992년 남총련 출범식 당시 대학생들은 남한의 태극기, 북한의 공화국기와 함께 단일기를 게양하면서 통일 의지를 표현했지만 국가보안법은 '인공기 사건'으로 특정해 대학 교정을 짓밟았다. 또 1996년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한총련의 통일 대축전에서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된 구호로 걸었음에도 그저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어 폭압적인 탄압과 함께 한총련을 통째로 이적단체로 만들어 버렸다. 불과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단일기 게양과 종전 선언, 평화협정 주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리리하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도 말하는 국가보안법은 정권이 바뀌고 남북 관계의 상황에 따라 변함 없이 등장한다. 화해와 통일을 말하면 고무 찬양, 북한 사람을 만나면 회화 통신, 모임을 만들면 이적단체 구성이란 식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반복

될 수밖에 없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블랙코미디'와 다름없다.

사례를 보자. 2018년 구속된 대북 사업가 김호, 2021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올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등장한 한총련 세대에 대한 왜곡과 폄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결코 사문화되지 않았다. 언제든 이렇게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리고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최대 피해 당사자인 전대협·한총련 세대가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 청원 이 9일 만에 이루어진 지 벌써 넉 달이 지났고 우리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청원에 참여하였다.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180세 거대 여당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를 위해 10만 명의 국민들이 목소리를 모았음에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다룰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목록부담으로 일관하는 국회와 민주당의 현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다.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의결할 것을 주문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社說

이재명 후보 확정 "이젠 정권 재창출이다"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그동안 치러진 열 한 차례의 지역 경선과 세 차례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까스로 과반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 지은 것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서울 지역 순회경선에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경선 투표표를 합산한 결과 이 지사가 50.29% (71만 9905표)의 누적 득표율로 유효투표 수의 과반을 얻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로 1위를 기록하며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지만, 누적 득표율 39.14% (56만 392표)로 최종 2위에 그쳐 대역전극을 쓰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했던 이 후보는 재수 끝에 여당 후보로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라

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민주 진영의 심장 역할을 해 온 호남 민심은 이번 대선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진보 정권'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대선 분위기는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여론이 충돌하면서 51대 49의 박빙 접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에게는 대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의혹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는 중도층에게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선 과정에서 양금이 깊어진 이 전 대표 측 등 민주당 안팎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원팀' 작업도 시급하다. 아울러 2030 젊은 층 표심을 다시 끌어안고, 호남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야 정권 재창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잇단 현장실습생의 죽음 달라진 건 없었다

직업계고 고교생이 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목숨을 잃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현장실습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웅천진수공원 요트정박장 해상에서 현장실습 도중 실종된 이후 발견된 특성화고 3학년 A(18)군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잠수 작업 당시 안전관리자는 선박 위에 머물렀으며 잠수 자격 관련 자격증도 없는 A군은 혼자서 바다에 들어가야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역시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였다.

해양레저고 고교생이 바다에 잠수하고 요트 밑바닥의 따개비를 때내는 일이 전 공에 맞는 현장실습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어린 10대 고교생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기술과는 무관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며 단순 부품처럼 쓰인 것은 아닌지 밝혀 달라"고 근로특성화고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간간히 발생해 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그저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정암(靜庵) 조광조(1482~1519)는 조선 중종 때 개혁을 주창한 인물이다. 당시 지지 기반이 미약했던 중종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파를 근위세력으로 끌어 들였다. 자연스럽게 정암은 중앙정치 한복판에 서게 된다. 조광조는 향약 실시 등 민간 중심의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당파싸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이른바 '주초위왕' (走肖爲王) 사건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역모자 신세로 내몰렸다. '주초' (走肖)는 조광조의 성씨인 '조' (趙)의 획을 풀어 씌자 왕이 된다는 뜻이다. 당시 수세에 몰린 훈구파는 희빈 홍씨를 통해 나뭇잎에 꿀을 발라 주초위왕이라는 글씨를 쓰게 했다. 나중에 별레가 이를 알아먹어 확연히 글자가 드러났다. 그렇게 해서 조광조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한다.

일마 전 대선 예비후보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한자로 쓴 '왕' (王)이라는 글자가 논란이 됐다. 윤 후보는 "우리 아파트에 다니는 몇 분이 써 줬는데 차에서 지우려 했지만 안 지워졌다"며 대동

령과 관련된 주술적 의미라는 건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후보는 "손바닥 '왕' (王) 자는 주권재민을 찬탈하겠다는 역모의 마음이 일찌감치 있었고 그가 정치검찰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 후보는 검찰 수장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았다. 검찰을 상징하는 디자인(CI)에는 중앙에 정의를 상징하는 칼의 형상이 들어 있다. 윤 후보의 손바닥 '왕' 자는 그가 몸담았던 검찰의 상징물 속 칼의 형상과 오버랩 된다. 사실 한자 '왕' (王)은 고대에 힘과 권력을 상징하던 도끼의 형상을 본떠 만든 상징문자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시대와 의미는 다를지언정 유사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주초위왕에서 시대의 개혁가를 죽인 모함을 떠올릴 수 있듯이 윤 후보의 손바닥 '왕' 자 역시 정이라는 명분하에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검찰'의 모습을 환기한다. '칼'과 '도끼'는 섬김이나 인권과 같은 단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